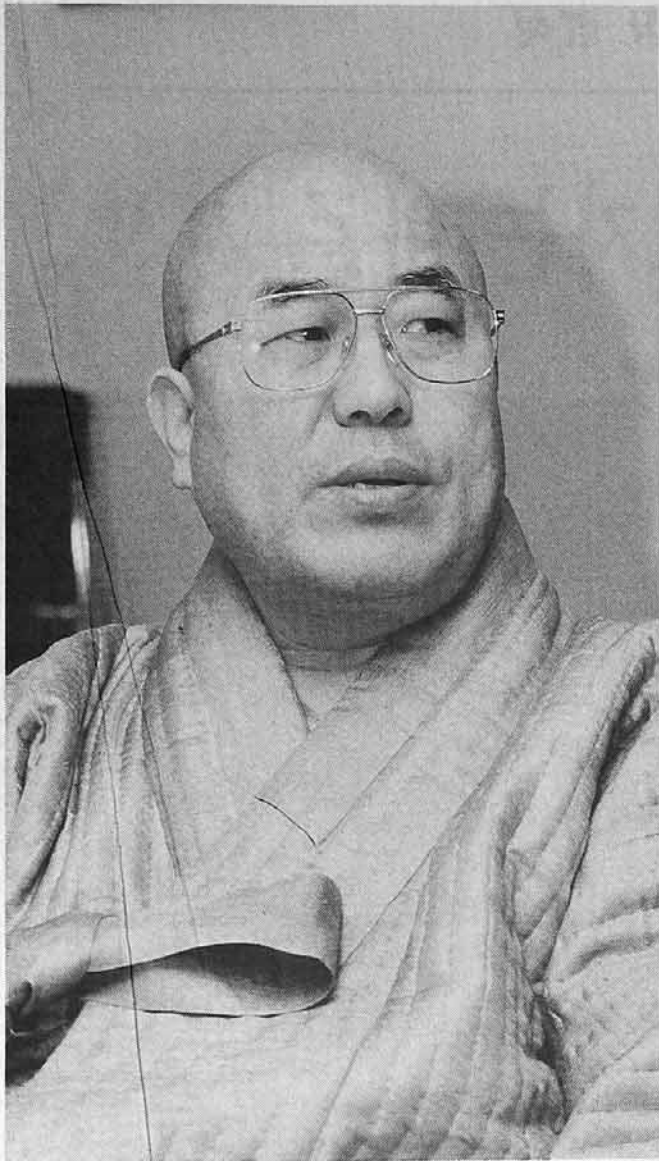


수 요 인 터 뷰

“건강한 가정에서는 비행 청소년 안나와요”



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회장

현성스님

—지난 17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우수 청소년단체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스님께서 대한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회장직을 맡으신지 5년이 되었는데 그간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편을 이끄시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을 받은 것은 우리 종교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화를 이끌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회가 합심하여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해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편은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한 단체입니다. 저는 이 단체를 맡은 이후 무너져 가는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회복에 종교편 사업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종교편은 도덕성 회복 실천대회, 청소년 공리회복 실천대회, 악몽·남용예방 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며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나라의 미래를 강조해 왔습니다.

—갈수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까지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보며 이 사회의 구조적 모

순을 개탄하게 되는데 오늘의 청소년 문제를 풀어 갈 가장 근원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이자 작은 세계입니다. 가정이 건강치 못할 때 이 사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강한 가정에서는 절대 비행청소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년원을 가보면 그곳에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를 건

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유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그 품에서 나는 젖을 먹고 자란 아이야말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생 직후부터 우유만 먹인다면요. 나리의 장애를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 바 신세대 주부들 어머니로서 행해야 할 보살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건전치 못한 자녀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정을 살리면 병든 사회도 치유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곧 교육환경의

중요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불교의 역할도 크지 않겠습니까

▲젊은 불교의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절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포교입니다. 절에 가서 법당에 한 번 들어가는 것, 법당의 의미를 한 번 이야기 듣는 것, 스님들의 법문을 한 번 듣는 것, 이 모두가 이미 포교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찰에서 수련회같은 행사를 해 보면 사찰이 얼마나 훌륭한 포교현장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 자체가 불교의 가르침이니까요. 따라서 모든 사찰은 청소년들을 위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스님께서 청소년 교화운동보다 교도소 포교의 현장을 다니신 것이 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양 교도소 종교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교도소에서의 포교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교도소를 다니며 포교를 한 것은 20여년 전부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는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다시 살아 나거나 아니면 영영 범죄의 길로 빠져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인들에게 찾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교도소도 교도소에서 불교와 인연 맺은 사람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통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도소라는 분위기와 범죄자라는 인상이 자칫 포교의 염두를 못 내게 하기 쉬운데요,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과거를 피눈물로써 참회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회는 보기 안타까울만큼 절실합니다. 그 절절한 참회의 모습을 보면 교도소야말로 수행자가 찾아가 접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바로 그 참회의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회하는 생활이 밝고 희망에 찬 내일을 열어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만심과 무지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병든 청소년을 낳고 또 교도소로 범죄자를 몰아 넣게 하는 것입니다. 무명숙의 사바세계는 참회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저는 그동안 교도소에서 5천여명에게 5계를 수계했습니다. 수계식 때마다 이 참회의 의미와 바른 삶에 대한 서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사회는 참회하는 이들이 모인 교도소보다 못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도 군포교도 대안회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군포교도는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군대에서 인생의 좌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불법을 전해 바람직한 삶의 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80년부터 12년간 도선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매우 크게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집 고치는 일에만 몰두하면 수행은 언제하느냐는 식의 질타도 없지 않았습다. 그러나 가람의 중창불사는 평생의 열정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12년간의 중창불사는 제게 커다란 공부였습니다. 그 공부의 힘이 청소년 교화운동의 현장으로 교도소로 군부대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해가 지났고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해 간단한 법문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보살’ 될때 정토실현 가능 “나의 수행은 청소년·군부대·교도소 포교”

개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년의 치열한 구도 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자유인의 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는 만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라는 이름도, 중생이라는 이름도 모두 녹아든 자리입니다. 如如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바로 당신의 마음자리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과 함께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大行스님께서 ‘말’ 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이 곧 불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 생인 게 화두요 네 마음이 화두요 네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大行스님 법어 중에서)

여벌의 삶은 없어도 다시 태어나는 삶은 있습니다.
 • 불법의 진리 속에 다시 태어 나십시오.
 “業으로 자신의 운명을 엮어 매려 하지 마라. 業이란 녹음 테이프와 같은 것 새 것을 입력하면 옛 것은 지워진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독경을 착실히 한다 해서 생활 불교는 아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근본인 불성을 굳게 믿어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세계의 참 주인으로서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른 생활 불교다.” (大行스님 법어 중에서)



「한마음 요전」에는 대행스님의 중생에 대한 사랑이 처절하리 만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 서울: 교보문고·영풍문고·종로서적·을지서적·서울문고(무악센터)·동화서적·월드북센터(신사역)·영풍문고·홍익문고·신촌문고·한기문고·태강서적센터·세종문고(잠실 롯데백화점)·두레문고(노원역)·종교방송 구내서점·온누리 서·서울시내 불교서적 전문서점
 • 전국 주요도시 불교서적 전문서점
 • 기획·편집: 한마음 선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62
 전화: (0343) 72-3100, 1512
 • 제작·공급: 도서출판 如是 我尼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02) 737-8881